|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I 제4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I 제4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①	2	18	③	2	35	⑤	2	35	⑤	2
2	②	3	19	②	2	36	②	2	36	③	3
3	④	2	20	①	2	37	②	3	37	①	2
4	④	2	21	④	3	38	②	2	38	①	2
5	①	2	22	④	2	39	③	2	39	②	2
6	③	2	23	⑤	2	40	③	2	40	⑤	2
7	①	2	24	⑤	2	41	④	2	41	④	2
8	③	3	25	④	2	42	④	2	42	③	2
9	②	2	26	②	2	43	⑤	2	43	⑤	2
10	④	2	27	①	3	44	⑤	3	44	②	2
11	⑤	2	28	①	2	45	②	2	45	③	3
12	①	2	29	④	3						
13	⑤	3	30	②	2						
14	③	2	31	⑤	2						
15	②	2	32	③	2						
16	⑤	3	33	②	2						
17	③	2	34	③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Ⅰ 제4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뒷부분을 참고하면, 보상이 내적 동기 형성에 기여하려면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지, 보상이 많을수록 독서 성과도 커진다는 차원의 내용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단순한 보상만으로는 독서의 내적 동기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는 보상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③ ⓐ에서 언급한 적절한 방식에는 자기 효능감을 자각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④ 자율적인 독서 환경 제공과 함께 보상이 이루어지면 독서의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전환되므로 ⓐ의 근거로 적절하다. ⑤ 독서 성과 정보와 함께 제공된 보상은 자기 효능감을 제고하여 내적 동기 형성에 기여하므로 ⓐ의 근거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지문의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과제 수행 중에 보상이 더해지면 과잉 정당화가 일어나 내적 동기가 최소화된다. ㉡에 따르면 이렇게 내적 동기가 최소화되는 것은 독서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오답풀이] ① ㉠은 적절한 보상이 특정 행동을 강화하므로 동기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③ ㉡에 따르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적 동기의 형성이 원활해진다. 설령 독서 종료 후에 주어지는 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적 동기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에 따르면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자각을 통해 동기가 형성된다. 그러나 엄격한 규칙 등으로 독서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을 참고할 때 독서 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려면 자율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것 자체가 외적 압박감에 해당하므로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독서 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기는 어렵다.

3.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지문을 읽고 나서 작년에 참여한 독서 마라톤을 떠올리며, 완주하고도 자신이 보람을 느끼지 못한 이유, 몇몇 친구들이 독서에 흥미가 생긴 이유 등에 대해 깨닫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이 독서의 혜택을 깨닫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학생이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은 없다. ③ 학생이 깨달은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학생이 읽은 내용과 자신의 경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 9] 인문-과학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6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시험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헴펠과 소버의 정의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가)와 달리 소버의 '시험 가능성' 개념을 진화론에 적용해봄으로써 진화론이 시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는 '시험 가능성' 개념을 분석하는 두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시험 가능성' 개념이 과학의 성공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는 과학 방법론이 학문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일부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시험 가능성' 개념이 학문 발전에 어떠한 인과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에서는 '시험 가능성'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두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버는 포퍼와 마찬가지로 진화론의 일반적인 가설들은 시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소버는 포퍼와 달리 특정 종의 특정 형질에 적용된 사례로서의 진화론 가설들은 시험 가능하다고 본다.

[오답풀이] ② 현대 과학 방법론에 따르면 '가설의 시험'은 과학의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시험 가능성이 없는 가설은 과학 탐구의 대상일 수 없다. ③ 현대 과학 방법론은 '가설의 시험'을 하나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퍼스의 철학은 이러한 과학 방법론의 사상적 원천이다. ④ 헴펠을 포함한 대부분의 철학자들에 따르면 관찰 명제는 우리가 직접 실험하거나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명제이다. ⑤ 유전자 부동론은 자연재해 등의 우연한 사건에 의해 개체군의 특정 유전자 빈도에 불규칙한 변화가 생겨서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

6. [출제의도] 특정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험 가능성'에 대한 소버의 정의에 따르면 시험되는 대상은 '가설 자체'가 아니라 경쟁 가설들 중에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또한 두 경쟁 가설이 시험 가능성을 갖는다는 말은 두 경쟁 가설을 각기 따를 때 관찰 명제가 참일 확률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설과 관찰 명제 간의 확률적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진짜 시험되는 경쟁 가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 가설 중 어떤 가설을 폐기하고 어떤 가설을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헴펠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가설이 시험 가능하다는 것은, 그 가설과 보조 가설로부터 관찰 명제가 도출됨을 의미한다. 즉 가설로부터 관찰 명제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보조 가설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헴펠의 정의는 확률적 가설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확률적 가설과 보조 가설로부터는 관찰 명제가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고 단지 확률적으로 도출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④ 소버의 정의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설과 관찰 명제 간의 관계는 확률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내려진 것이다. ⑤ 소버의 정의에 따르면 경쟁 가설들이 서로 다른 확률을 부여하는 관찰 명제가 실제 실험 결과로 관찰될 때에는 경쟁 가설들 중 그 관찰 명제에 가장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가설만 수용되고 나머지 가설들은 폐기된다. 따라서 소버의 정의는 관찰 명제에 어느 정도의 확률을 부여하는 가설도 폐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7.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주장을 사례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보기>에서 언급하는 ㉠의 사례는 우선, H1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더운 지역 곰의 털 길이와 추운 지역 곰의 털 길이가 비슷하여 '현재 곰의 털 길이는 주변 온도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관찰 명제 E2가 참일 확률이 높은 경우이다. 그런데 H1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E2가 참일 확률이 높기 위해서는 곰의 조상의 털 길이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해야만 한다. 그 가정은 H1에 따라 진화가 진행되어 곰의 털 길이가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 서로 비슷해지는 시점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정답풀이] H1이 참이더라도 E2가 참일 확률이 E1이 참일 확률보다 높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상황이 서술되어야 하므로 ㉯에는 현재 곰의 털 길이가 '모든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다'가 적절하다. 그런데 이렇게 E2가 참일 확률이 높기 위해서는 ㉮에 '곰의 조상의 털 길이는 더운 지역보다 추운 지역에서 훨씬 더 길었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곰의 조상의 털 길이는 더운 지역보다 추운 지역에서 훨씬 더 짧았다.'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곰의 조상의 털 길이에 대해 이렇게 가정해야만 H1에 따라 진화가 진행되어 곰의 털 길이가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 서로 비슷해지는 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이 현재라면 현재 E1이 참일 확률보다 E2가 참일 확률이 더 클 것이다.

8. [출제의도] 특정 입장에서 지문과 <보기>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소버의 입장에서 <보기>에 제시된 가설과 관찰 명제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라는 가설 H3과 관찰 명제 (ㄱ) 간의 관계나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H4와 관찰 명제 (ㄴ) 간의 관계는 확률적이다. 그리고 H3과 "조사 대상인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흡연 여부 외에는 모든 조건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보조 가설 (ㄷ)은 (ㄴ)보다 (ㄱ)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하고, H4와 (ㄷ)은 (ㄱ)보다 (ㄴ)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한다. 결국 H3이 H4보다 (ㄱ)에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하는 셈이다.

[정답풀이] 지문에 따르면 H1, H2의 시험을 위해 곰이 공통 조상을 지닌다는 보조 가설의 도입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H3, H4가 시험 가능하려면 이미 정당화된 보조 가설 (ㄷ)의 도입이 필요하다.

[오답풀이] ① 소버는 시험이 대조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경쟁 가설들은 각각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시험될 수 없고, 시험은 항상 경쟁 가설들 중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② 곰의 조상이 지역마다 다를 때 E1에 의미 있는 확률을 부여하기 힘든 것처럼, "조사 대상인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은 흡연 여부 외에 모든 조건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ㄷ)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ㄱ)에 의미 있는 확률을 부여하기 힘들다. 반면에 의미 있는 확률을 부여하기 위해 '조사 대상의 흡연 여부의 차이'는 조사 대상인 두 집단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차이이다. ④ (ㄱ)이 실제로 관찰되어 왔다면 H3이 (ㄱ)에 높은 확률을, 즉 H4보다 더 높은 확률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H3이 수용될 것이다. 즉, (ㄱ)과 H3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이유로 H3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⑤ H3과 H4가 시험 가능하다는 것은 (ㄷ)을 보조 가설로 도입하면 H3이 참일 때 (ㄴ)이 참일 확률과 H4가 참일 때 (ㄴ)이 참일 확률이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9. [출제의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포괄하다'는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다.'라는 뜻이므로 '따지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 13]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13쪽

10.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패킷에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가 적혀 있으나 거쳐야 할 라우터들의 IP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다음에 거쳐야 할 라우터는 패킷이 도달한 라우터에서 라우팅을 거쳐 정해진다.

[오답풀이] ① IP 주소는 점으로 구분된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지문에 예시로 제시된 '***.168.0.1'로 보아 한 자리 숫자들도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8.8.8.8'도 사용될 수 있는 IP 주소이다. ② IP 주소는 네트워크상에서 각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IP 주소를 갖는 두 개의 장치가 한 네트워크에 있을 수는 없다. ③ 패킷은 출발지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묶음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묶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⑤ 지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RIP는 '홉'이 가장 작은 경로를 택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간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두 대상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은 모두 라우팅에 속한다. 라우팅은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답풀이] ① 동적 라우팅뿐 아니라 정적 라우팅도 라우팅 테이블에 다른 라우터들과 컴퓨터들에 관한 정보를 적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정적 라우팅은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가 사용될 뿐이다. ② 정적 라우팅이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규모가 커서 변동이 잦은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③ 추가되는 라우터에 관한 정보들을 관리자가 입력하는 것은 동적 라우팅이 아니라 정적 라우팅이다. ④ 정적 라우팅이든 동적 라우팅이든 공히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패킷에 적혀 있는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를 참조한다.

12.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규칙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RIP는 대표적인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로, 라우팅 테이블에 정보들을 추가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라우터가 패킷의 전체 경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라우터만 정하는 방식이다. 즉, 각 라우터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정하는 규칙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각 라우터에서 바로 다음 라우터를 정하는 규칙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RIP는 항상 이웃한 라우터들과 30초에 한 번씩 정보를 교환한다. 이때 교환하는 것은 라우팅 테이블이다. 따라서 30초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③ 동적 라우팅은 라우터가 추가되거나 연결이 바뀌는 등의 변화에 대비한다.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라우팅 테이블의 완성 상태가 유지되므로, 새로운 라우터가 추가되는 등의 변경을 확인하는 규칙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④ 라우터는 교환받은 정보들에서 '목표'가 자신인 정보를 제외하고 남은 정보들을 업데이트한다. ⑤ 라우터들이 이웃한 라우터로부터 정보를 교환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때 기존 정보에서 '홉'이 달라진다. 따라서 '홉'을 변경하는 규칙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라우터들은 먼저 초기 상태의 정보들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정보 교환과 두 번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면 라우팅 테이블이 완성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각 단계별 라우터들에서 추가되는 정보들이다.

	R1	R2	R3
초기 상태	c1, 0, c1	r1, 0, r1	r2, 0, r2
	r2, 0, r2	r3, 0, r3	c2, 0, c2
첫 번째 교환	r3, 1, r2	c1, 1, r1	r1, 1, r2
		c2, 1, r3	
두 번째 교환	c2, 2, r2		c1, 2, r2

[정답풀이] 두 번째 정보 교환으로 라우팅 테이블들이 완성된다. C1을 목적지로 하여 C2에서 전송된 패킷은 R3에서 {c1, 2, r2}에 따라 R2로 이동할 것이다. 이어 R2에서 {c1, 1, r1}에 따라 R1로 이동할 것이다. R1에서 참조되는 정보는 {c1, 0, c1}이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정보 교환에서 R1이 R2로부터 받은 정보에는 R3에 관한 정보, 즉 {r3, 0, r3}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r3, 1, r2}를 추가했을 것이다. ② 첫 번째 정보 교환에서 R3에 추가되는 정보는 {r1, 2, r2}가 아니라, {r1, 1, r2}이다. ③ 두 번째 정보 교환에서 R3에는 하나의 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c1, 2, r2}이다. 그런데 이 정보는 '다음'이 c1인 정보는 아니다. '목표'가 c1인 정보가 처음으로 추가된 상태이다. ④ 두 번째 정보 교환에서 R2가 R3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추가되는 정보는 없다. 첫 번째 정보 교환 상태에서 이미 자신을 제외하고 네트워크의 컴퓨터와 라우터에 관한 모든 정보가 라우팅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c2, 1, r3}은 두 번째 정보 교환이 아니라 첫 번째 정보 교환에서 R2에 추가된 정보이다.

[14 ~ 17]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26쪽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한,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해당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후의 보험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손해 보험은 우연한 보험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우발적인 사고만이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 사고가 된다. ② 피보험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최대한도인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지급받는 금액 역시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험 계약자가 다수 계약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의무의 위반이 보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이 성립한다. 따라서 다수 계약 통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이 성립하지 않아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⑤ 상법에 따르면 중복 보험이 체결되었고 보험 계약자가 선의의 계약자인 경우 보험자는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어서 보험자는 다른 내용을 약관이나 보험 계약에 넣을 수 있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여러 개념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득 금지의 원칙'은 '보험 금액'이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인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상법상 기준인 피보험 이익은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목적)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손해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피보험 이익, 즉 ㉡이 존재해야 한다. ③ ㉠뿐 아니라 ㉡ 역시 동일한 보험 계약들이 여러 보험자와 동시에 체결될 때 중복 보험이 된다. ④ ㉠이 아니라 ㉡의 평가액인 '보험 가액'은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의 최대한도, 즉 '보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⑤ ㉡이 동일한 두 개의 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중복 보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중복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도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중복 보험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A가 타보험주의를 따르는 경우와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르는 경우에 각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풀이] X가 A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이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지 않는다. 그런데 A가 타보험주의를 따르는 경우, B와 C가 우선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비례보상주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연대비례보상주의에 의하면 B는 손실액인 5천만 원의 3/4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자신의 보험 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경우 B는 자신의 보험 금액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오답풀이] ① X가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로 인한 중복 보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때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자들은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모든 보험자가 연대비례보상주의를 따르는 경우, A는 전체 손실액의 6/10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A는 5천만 원의 6/10인 3천만 원의 보상 책임을 진다. ③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대 금액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만큼만 보상한다. 따라서 보험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더라도 실제 손실액이 5천만 원이므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는 5천만 원이다. ④ A가 타보험주의를 따르는 경우, B와 C는 연대비례보상주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B는 5천만 원의 3/4을, C는 5천만 원의 1/4을 보상해야 하지만, 이 금액은 각자의 보험 금액을 초과하므로 보험 금액만큼만 보상하면 된다. 따라서 B는 3천만 원, C는 1천만 원을 보상하고, 그 잔액인 1천만 원을 A가 보상한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동음이의 관계인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공모(共謀)'는 문맥상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함.'이라는 의미이며, ③의 '공모(公募)'는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8 ~ 21]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박씨전」(수능특강 19쪽)**

18.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맥락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금은 조복에 수놓인 그림에서 수컷 '봉'과 이별하고 우는 암컷 '황'의 모습과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청학'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그러고는 조복 지은 사람이 상공의 며느리라는 대답을 듣고 그 며느리가 '고초'를 당하며 '독수공방'하는 처지에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는 것이다.

19.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베주머니에 의송(= 조선 시대에,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서류.) 들었다는 말은, 보기에는 허름한 천 주머니지만 그 속에 기밀한 서류가 들었다는 뜻이다. (초막집에 의장 들었다는 말은, 초라한 초가집에 옷을 넣는 장이 있다, 즉 가난해 보이는 집에 뜻밖의 살림살이가 있다는 말인 것으로 짐작된다.) 어휘 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모를 보아서는 못난 듯하나 실상은 비범한 가치와 재질을 지녔다'라는 뜻의 이 말은, 박씨의 뛰어난 침선 재주가 그의 추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응된다. ㉡에서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지문의 맥락상 ㉢은 박씨의 재주를 칭찬하는 대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박 씨의 외모를 비웃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임금은 조복에 드러난 박 씨의 뛰어난 수품(솜씨)을 통해 박 씨의 심성도 뛰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는 대상 간 유사성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박 씨가 지닌 수품이 뛰어나므로 그가 지닌 심성도 뛰어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방식이다. ④ ㉣은 '여자가 한을 품은즉 오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을 활용하여 '부디 지난 일을 둘러 버리시고 마음을 편히 하'라고 사과하는 말이다. 시백의 이 사과를 전해 듣고 박 씨도 '조금 감동하여 좋은 빛'을 보이는 것이다. ⑤ 해당 부분은 '박 씨 정도 되는 사람이니 망정이지, 누가 남편이 장원 급제를 했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초당에 혼자 있으면서 태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이다. 박 씨가 소외된 처지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상황을 부각하며,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를 보면, 박 씨는 꿈에서 청룡을 보고 '연적'을 얻어서 이를 과거 보러 가는 남편 시백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나 시백은 박 씨가 자신을 지체시킨다며 화를 내고, 말을 전하러 온 시녀 계화를 매질하기까지 한다. 이에 박 씨가 '이 연적을 가지고 과거에 급제하여 성공한 다음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잊어버리고 다른 가문의 아름다운 여자를 맞아들여 행복하게 사시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에둘러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시백은 계화를 통해 '연적'을 받았다. 박 씨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박 씨에 대한 상공의 평가는 박 씨가 지은 조복을 입고 조정에 다녀온 뒤 반전된 것이 아니다. 상공은 집안사람들이 박 씨를 박대할 때에도 박 씨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을 것이라며 믿고 조복 짓기를 맡겼다. 원래도 박 씨를 좋게 보던 상공이 조정에 다녀온 뒤 박 씨를 더욱 칭찬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오답풀이] ③ 조복에 수놓인 그림으로부터 박 씨의 사정을 헤아린 임금은 박 씨를 칭찬하고 왕명으로 '매일 삼시 서 말의 식료'를 내리고 '부디 박대치 말고 후대하라'라고 당부한다. 이는 왕이 박대당하던 박 씨의 수난을 덜어 주는 모습으로, 왕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⑤ 조정에 다녀온 상공은 박 씨를 박대한 시백을 꾸짖고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훈계한다. 이후 시백과 집안사람들이 감히 박 씨를 박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박 씨가 연적을 전하려고 할 때 시백은 박 씨에게 가지 않으려 하고 계화를 매질하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시백이 여전히 박 씨를 홀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박 씨를 '아녀자'라고 칭하는 것은 여성 영웅의 비범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가부장적 사고를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2 ~ 27]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민우룡, 「금루사」(수능완성 64쪽)**

➔ **작가 연계 : 박지원, 「녹천관집서」(수능특강 206쪽, 수능완성 214쪽)**

➔ **강복중, 「수월정청흥가」**

22. [출제의도] 작품의 시상 전개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1수>의 초장과 중장에는 강호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제14수>에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제14수>는 '율령천 백구들'이 화자에게 건네는 말을 통해,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시비를 가리는 일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백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백구'를 두고 검다 희다 한다는 종장의 내용 역시, 시비를 가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상을 멋대로 재단하고 그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한다는 것이다.) 화자는 '백구'의 말을 통해, 자신이 은거하는 자연과 대조되는 인간 세상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③ <제1수>에서 화자는 '북풍을 향하여 님만 그려 우'는데, <제19수>의 '위군부 원한'이라는 말을 고려할 때 이는 임금과 떨어진 상황에서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듯하지만, 내심으로는 임금의 곁에서 임금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님'을 임금이라 본다면, <제13수>에서 화자가 지은 '가사'에는 '님' 즉 임금에 대한 충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너도 나를 보려 하면 험한 산이 첩첩하고/나도 너를 보려 하면 영주산(한라산)이 아득하다'라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너' 사이의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참고로, 이 작품은 경북 문경이 고향인 작가가 제주도에 갔을 때 만난 기생과의 사연을 노래한 것이다.)

[오답풀이] ④ [A]의 표현에서 과장된 느낌을 받더라도, 이는 '너'가 있는 공간인 제주도로 가서 '너'를 만나게 된 상황을 부각하는 것이지 천상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24.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19수>에서는 화자의 '위군부 원한'이 '봄비'가 되어 내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점에서 '봄비'는 자신이 삶에서 충과 효를 다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화자의 애상감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너'와의 만남을 두고 '인간의 사월 팔일 천상의 칠석이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사월 팔일'은 화자가 '너'와 만난 날일 것인데, 화자는 이를 '천상의 칠석'이라 하여 '너'와의 만남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만남에 빗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천상의 칠석'은 '너'와 만나 화자가 느끼는 기쁨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가)의 '정대 군자'는 화자가 품은 뜻에 공감하는 이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강한 존재로 그려져 있는데, 천상의 주재자인 '옥황'은 화자가 '너'를 그리는 정성에 감동하여 화자를 돕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 ③(가)의 '모야 명월'은 '충효'를 다하지 못하는 화자의 애상감과 비극적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한편 (나)의 '은하수'는 화자와 '너'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④(가)의 '두견'은 화자가 죽어 그 '넋'이 되겠다고 말한 대상으로서, 임금을 그리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한다. (나)의 '꾀꼬리 제비'는 '너'와 화자가 만난 봄날의 다정한 분위기를 부각한다. 따라서 상황의 분위기와 관련된 소재인 (나)의 '꾀꼬리 제비'보다는, 화자의 정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재인 (가)의 '두견'이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백면서생'은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화자는 자신이 천상의 '선객'이었는데, 지금은 적강하여 '남관의 백면서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백면서생'이 작중 공간에 화자와 함께 존재하는 인물이라 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시에서 발화의 주체는 화자이다. 그런데 (가)는 '백구들'이라는 또 다른 발화 주체를 도입하여, 그들이 화자에게 건네는 당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 세상에서의 시비 문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가)의 '행인'은 화자의 '뜻을 알아 주마수를 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화자는 '충효'를 다하지 못한 삶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행인'이 '주마수'를 한다는 것은 곧 화자에 대한 공감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맥락을 고려하여 구절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정대 군자'들은 옳다고 여기는 자신의 '가사'에 대해, '폐일부운류'는 이를 그르다 여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의 전체적 맥락을 볼 때, '폐일부운류'는 '정대 군자'와는 대비되는 소인이나 간신배들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은 옳은 것을 그르다 하며 화자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옛글을 그대로 따르는 글을 쓸 것을 강요하는 데 대한 불만과 탄식을 담은 말이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언어가 달라도 통역을 통해 의사를 소통할 수 있'으며 '글자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문장을 지을 수 있다'는 진술은, 말과 글에서 표현의 방식보다는 그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글의 전체 맥락을 참고하면 이는 결국, 옛글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는 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용구에는 시대에 대한 진술이 없으며,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시대가 변해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창힐'은 무엇도 모방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글자를 만든 사람이고, '안연'은 자신이 배운 학문을 글로 남기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창힐이 글자 만들 때를 생각하면서 안연이 표현하지 못한 취지를 저술한다면 비로소 글이 올바르게 될 것'이라는 말은, 옛것을 모방하기보다 새로운 표현을 창출해 내면서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아내야 비로소 좋은 글이 된다는 생각을 담은 말이라 할 수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표현 수단을 궁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은 것이다. ⑤'은고와 주아'는 각각 유교 경전의 글들인데, 글쓴이는 유교에서 추앙받는 이들 글이 '은나라와 주나라 때 유행했던 시속의 글'임을 지적하고 있다. 옛글이 처음부터 절대불변의 전범(=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시정의 글에서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옛글이 당대의 진실을 담기 위해 시속의 언어, 즉 당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글쓴이의 시대의 진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는 쇄신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8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나희덕, 「음지의 꽃」(수능완성 170쪽)**
➔ **작가 연계 : 윤동주, 「흰 그림자」(수능특강 82쪽)**

2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총명했던가요'라고 스스로에 대해 던지는 의문형 진술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풀포기나 뜯자'라는 청유형 진술을 통해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구나'와 같이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를 통해 영탄적 어조를 구사함으로써 대상에 대해 느끼는 경이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가)는 특정 대상을 호명하고 있지 않다. 호명의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나)이다. (나)는 '음지의 꽃이여'와 '버섯이여'와 같이 반복적인 호명을 통해 시적 대상인 '버섯'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③(나)는 자연물인 '참나무 떼'에 대해 일인칭 복수형의 주어인 '우리'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부각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황혼'은 '땅거미(=해가 진 뒤의 어스레한 상태.)'의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할 만큼 화자의 감각과 의식이 고조된 시간이자, 화자가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를 감안할 때 [C]의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이라는 표현은, '방'의 공간성을 '황혼'의 시간성과 결부하여 나타냄으로써 고조된 의식 상태나 성찰의 자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비극적 현실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취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의 결별은 화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일일 뿐, 그것이 곧 일제 치하라는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화자가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황혼' 무렵 '땅거미'가 옮겨지는 시각적 이미지를 '발자취 소리'로 청각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 ②<보기>를 참고할 때, '수많은 나'는 과거의 시간(혹은 그러한 시간 속 자신)을, 현재의 자아와 독립된 별개의 자아처럼 대상화한 것이다. '수많은 나'의 모습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려진 점에서, 화자가 과거에 심한 내적 갈등과 번민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③'수많은 나'를 제 고장으로 돌려보낼 때 '흰 그림자' 역시 '소리 없이 사라'진다고 한 것에서, '흰 그림자'가 화자의 과거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때 '흰 그림자'는 화자의 분열된 자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과거의 순수했던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흰 그림자'를 '연연히 사랑하'였다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가 결별하고자 하는 과거가 화자에게 애착의 대상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30.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를 고려하여 특정 부분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썩어 가는 참나무 떼'의 '몸에 뚫린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모습은, 죽음과 삶이라는 대립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적 긴장을 고조하면서 죽어 가는 존재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발현하는 양상을 부각해 주고 있다. 그러나 버섯은 참나무의 '고통'을 '멈추게' 해 주는 존재이지 참나무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며, 이 부분이 죽음과 삶의 대결 양상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⑤'버섯'은 '낙엽으로도' '바람으로도' 덮을 수 없던 '참나무'의 죽어 가는 '몸'을 채워 주는 존재인데, 화자는 이러한 버섯의 생명력을 '독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을 독과 결부하여 표현한 것은, 죽어 가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발현되는 생명력의 강인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강하게 부각하여 그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1 ~ 34] 현대소설

➔ **연계 지문 : 천승세, 「포대령」(수능완성 246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에 의해 서술되므로 서술자는 이야기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나'가 포대령과 함께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에 대한 '나'의 생각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지문은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다른 인물과 관련된 경험을 자신의 내면 심리와 함께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서술자 '나'는 포대령으로 인해 겪는 일에 대해 자신의 심경뿐만 아니라 포대령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대한 자신의 해석까지 더해서 서술을 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서술자인 인물이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을 내적 독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포대령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다. 포대령과 자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심리적 연원을 추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한 대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순간 포대령의 얼굴 위로 착잡한 경련이 일었다.'라는 서술 뒤에 이어지는 포대령의 폭언과 구타 행위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인물의 설움이 폭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가 반대로 서술된 것이 아니다.

32. [출제의도] 중심 사건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포대령이 당장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깎고 오라고 하자 못하겠다고 하며 오늘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자 포대령이 탈영하겠다는 거냐고 묻는데, 이에 대해 '나'는 '탈영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겁니다!'라고 대답한다. 즉 '나'는 탈영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포대령이 그것을 탈영으로 받아들여 분노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④ '나'가 '제대했'다며 포대령의 명령을 거부하자 포대령은 '똥가이 새끼' 등의 폭언과 '나'의 턱주가리를 받아넘기는 폭행을 연달아 하고 있는데, 이는 ㉠의 '그의 발작적인 행위'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33. [출제의도]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포대령은 자신도 '나'도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사병처럼 머리카락을 짧게 깎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건너편 채석장에서 터지는 다이너마이트 소리'를 '포성'이라 여기면서 그 포성이 들리는 곳은 어디든지 '영내(=병영의 안.)'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포대령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곧 '그가 설정한 가정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나'는, 그가 머리를 짧게 깎으라고 명령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자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부하이다. 또 '채석장'은 포 소리가 들려오는 전쟁터로 설정되어 있는데, 전쟁터는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증해 주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나'가 포대령의 시선에서 '애절한 하소와 동감의 요구'를 읽어 내고 있는 것을 보면, 포대령이 '나'를 자신의 심적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동료로 여기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의 '진심'이 그러할 것이라고 '나'가 해석한 결과이다. 즉, '그가 설정한 가정 세계'에서는 '나'는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 할 부하일 뿐 자신의 심적 고통을 이해해 줄 동료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포성이 들리는 '채석장'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쟁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채석장'은 심적 고통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긴 분명히 영내'라고 우기고 '김달봉(포대령의 본명)이가 대포를 떠'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포대령이 자신을 여전히 군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밀려난 줄 아니? 내가 팽가티구(팽개치고)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군복을 벗은 사실, 즉 군을 떠난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제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④ 포대령은 '나'가 사과를 했는데도 굳이 '정식으로 하라'고 하여 '거수경례'를 하도록 만든 뒤 매우 흡족해하며, 거기에다가 자신이 가한 폭행에 대해 '인삼 녹용 먹었다구 생각하라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가한 처벌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모든 일을 군대식으로 처리하려 하고 상관이 가하는 폭력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군사 문화에 젖은 태도라 할 수 있다. ⑤ 포대령의 분노가 '인정의 황막한 단절'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으로부터 단절된 삶, 즉 소외된 삶을 살다 보니 세상에 대해 분노를 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런 생각으로 '나'가 포대령에게 '후회 없는 동정을 쏟았'다는 것은 그를 연민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뜻한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35. [출제의도] 입론의 특정 발화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1쪽

'반대 1'은 ㉠에서 '만약 주민 등록 번호 제도를 폐지한다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하고, '행정과 치안 등에 필요한 ~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됩니다'라고 상대방의 주장이 실현됐을 때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반대 신문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6쪽

'찬성 1'은 앞선 질문에 조사를 시행한 주체가 '주민 등록 번호 유출 피해자 단체'라고 답한 뒤 [A]에 대한 답으로 '이 단체에서 조사하였지만' '공정한 설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주민 등록 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측'에서 조사한 결과가 공정할 수 있는지 묻는 ②가 반대 신문으로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배심원이 토론에 대해 평가한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48쪽

'찬성 1'이 '주민 등록 번호 유출 사고가 다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38 ~ 41]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90쪽

38. [출제의도] 강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강연자가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강연자는 '합리적인 소비의 네 단계를 꾸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③ '여러분은 ~ 구매한 적이 있지 않나요?', '또 용돈을 받은 지 ~ 가불받은 적은요?'라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비합리적인 소비란 ~ 일컫는 말입니다.'라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등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의 네 단계와 관련된 강연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

39. [출제의도]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은 뒤 그 답으로 합리적인 소비의 네 단계를 정리한 표를 ㉡에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강연자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에게 비합리적인 소비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에 각각 충동 소비 경험 청소년 비율, 충동 구매의 이유 비율, 용돈보다 지출이 많은 청소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세 개를 제시하였다. ⑤ 강연자는 구매 과정 돌아보기 단계의 예시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용돈 기입장에 구매한 상품에 대한 소감을 적는 칸을 만들어 기록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강연 내용에 대한 감상문의 글쓰기 계획이 감상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소비 방법에 관한 강연에 ~ 도움이 될 것 같아 강연에 참석했다.'라고 강연의 주제와 강연에 참석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② '강연에서는 ~ 알려 주었다.'라고 강연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④ '강연을 들으며 ~ 과소비를 하고 있던 것이다.'라고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고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 ~ 큰 도움이 되어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하여 일상생활에 강연 내용을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던 점을 알려 주고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끝부분을 적절하게 이어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 문장에서 '합리적인 소비의 네 단계를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고 합리적인 소비의 네 단계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제시하고 둘째 문장에서 '비합리적인 소비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를 소개하고 함께 실천해 보자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친구들에게 이를 권유해야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42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60쪽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2. [출제의도] 두 글의 작문 맥락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제재는 '갯녹음 현상'이다. (나)의 주제는 제재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 방안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갯녹음 현상'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 중 하나이지 해양 생태계에서 어떤 효용 가치를 가지는 현상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내용 조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갯녹음 현상의 해결 방안이 드러난 부분은 넷째 문단인데 그 효과를 비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셋째 문단에 인과 구조를 활용해 갯녹음 현상의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이유 각각을 인과 구조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해조류를 먹는 동물인 조식 동물의 개체 수가 많아'졌다는 원인에 의해, '해조류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② 둘째 문단에 갯녹음 현상의 정의가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되어 있다. ③ 첫째 문단에 갯녹음 현상의 국내 확산 양상이 시간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넷째 문단에 갯녹음 현상을 저지하는 방법 세 가지가 나열 구조로 제시되어 있다.

44. [출제의도]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ㄷ은 해양수산부가 실행 중인 바다숲 조성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 단체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바다숲 조성 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할 수는 없다.

45. [출제의도] 초고를 수정하면서 반영한 조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 중 첫 문장이 삭제되었다. 이는 갯녹음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는 내용이다. 또, 예상 독자에게 갯녹음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관심을 갖자는 관심 촉구의 문장이 마지막에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②가 적절하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이형태 관계에 놓인 단어 쌍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59쪽

㉢의 '와'와 '과'는 모두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며, 받침의 유무에 따라 그 쓰임이 선택되므로 형태소가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의 '-어'와 '-여'는 모두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어'는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ㅗ'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고, '-여'는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므로 형태소가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의 '-시-'와 '-으시-'는 모두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기술에 결합하여 그것이 상위자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시-'는 '이다'의 어간이나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고, '-으시-'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쓰이므로 형태소가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④ ㉠의 '이'와 '저'는 그 의미와 쓰임이 서로 다른 단어이다. ㉡의 '에서'는 주격 조사이고, '에'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그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

36. [출제의도] 형태소의 기본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59쪽

'있-'은 '있는[인는]'에서는 [인]으로, '있다[읻따]'에서는 [읻]으로, '있어[이써]'에서는 [있]으로 실현된다. [있]이 음운 환경에 따라 [이]라는 이형태로 실현되었다는 진술은 잘못되었다.

[오답풀이] ① '를'과 '을' 사이의 교체를 설명할 만한 음운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어간의 기본형을 '알-'로 설정할 경우, 'ㄹ' 탈락으로 [아]라는 형태가 실현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기본형을 '아-'로 설정할 경우, [알]이라는 형태가 실현되는 이유를 설명할 음운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부정문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59쪽

'아무도 그 바위를 들지 못했다.'는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다. 또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에 들어맞는다.

[오답풀이] ②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다.'는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며, 그 의미상 단순 부정에 해당한다. ④ '너희들의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해.'는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다. 여기서 '-지 못하다'는 능력 부정이 아닌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1쪽

'그을린'은 용언 '그을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풀이] ③ '날짐승'은 용언의 어근 '날-'과 어근 '짐승'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아침내'는 어근 '아침'과 '그 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뜻을 가진 접미사 '-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걱정하던'은 어근 '걱정'에 접사 '-하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보이자'는 용언 '보다'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39.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8쪽

자료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빋'이 '값'을 의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빚'이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뜻하므로, 이는 그 어휘의 의미 영역이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 42]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34쪽

4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매체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문자 언어와 함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핵심 내용을 담은 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③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디지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나)이다. ④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본문에 삽입한 것은 (나)이다.

41. [출제의도] 기사형 광고와 후기형 광고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여러 영양제 중에 특정 영양제를 선택했다고 밝힌 것은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구입해 후기를 남기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나)가 믿을 만한 실제 후기라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매체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 쓰인 '-겠-'은 기사형 광고를 읽는 독자에게 '□□□' 섭취를 권유하면서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선어말 어미이다. '□□□' 섭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43 ~ 45] 매체

43. [출제의도] 휴대 전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24쪽

'규민'이 '들어가서 봤는데 포스터들 다 멋지다.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말하자 '희주'는 '초청장 제작'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규민'이 언급한 내용이 '회의랑 관련 없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시아'는 '포스터 이미지'와 '짧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SNS의 주소를 하이퍼링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휴대 전화 메신저의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44. [출제의도] 초안에 반영된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59쪽

(나)에서는 일정별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원 모양 도형 여러 개를 나열해 예술제의 전체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술제의 진행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진행 순서를 화살표를 사용하여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60쪽

'우성'은 '제작 영화 상영과 여러 공연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해 주면서 '진행 예정 시간'도 각각 적어 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제작 영화 상영'과 '여러 공연'이라는 두 항목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예정 시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